

광주·전남 가계 자산디플레이 심화

“이러다간 가계 부도 날 수도 ..” 불안 확산

내수·투자 바닥 ... 부동산 침체 거듭
불확실성이 공포감 더욱 조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등 실물경기 불안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 혼란은 이미 광주·전남 등 국내 실물경기를 끌어내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경제 불황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공황 장기화로 국내 실물불안 기증>=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광주·전남 등 국내 가계의 자산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코스피지수는 938.75로, 올 들어 50.5%나 폭락했다. 주식 투자자들의 자산이 10개월 사이에 ‘반토막’ 난 것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운용으로 여겨졌던 펀드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내 집이나 자녀의 교육비 마련, 노후 대비를 위한 펀드가 세계 금융위기의 파고에 속절없이 휩쓸리고 있다. 회사원 박모(38)씨는 “아이들 교육비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매달 20만원 이상씩 900만원 가량을 적

립식 펀드에 넣었는데 현재 40% 가량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고품가로 인한 실질금리 하락도 이자생활자 등 서민 가계를 옥죄고 있다. 8월 현재 예금은행이 적용한 저축성 수신의 평균 금리는 연 5.91%로 나타났다. 같은 달 물가 상승률(5.6%)을 뺀 실질 금리는 0.31%로, 이자소득세(15.4%)를 빼면 사실상 금리가 ‘제로’ 상태가 됐다. 부동산 가격도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서울지역의 평균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서울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자산가치 하락세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미분양 주택 급증 등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지난해 말부터 집값 등 자산가치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광주·전남은 7월 말 현재 미분양이 1만7천세대 이상 쌓이는 등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물경제도 이미 냉각>=“경기가



박병원(가운데) 경제수석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장기화 가능성”=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전기대비 성장률은 3·4분기에 0.6%로, 2004년 3월(0.5%) 이후 가장 낮았다. 이같은 실물경제 둔화는 재화 수출이 전분기보다 1.7%가 줄어드는 등 한국경제의 유일한 엔진인 수출마저 얼어붙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내수와 투자는 이미 바닥권으로 떨어지면서 오래다. 민간소비는 전분기

보다 0.1% 늘어나는데 그쳤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2.3%, 0.3% 증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불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장 내년의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은은 내년 연간 성장률이 3%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내다봤고, LG경제연구원(3.6%), 한국경제연구원(3.

8%) 등 대부분 주요 예측기관들도 내년 성장률을 3%대로 예측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2%로 제시했다. 더욱 문제는 내년 안으로 경기가 회복을 시작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경기가 내려간 상태에서 앞으로 회복하는 ‘L자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국제 공조 차질없이 추진
추가감세·재정지출 확대”

李대통령 경제상황 점검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약화일로로 치닫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다자무대에서 각국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와 한국의 역할론을 설파한 데 이어 국내 시장에 긍정적 메시지들을 던지며 위기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만 잘 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국제 공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실상과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에게 정부 대책의 내용과 배경, 기대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안 국회 조속 통과 ▲중소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인하 검토 ▲재정지출 및 감세를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 ▲수출활성화·에너지 절감·여행수지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 노력 및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강화 ▲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등 5개항에 공감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안정을 종합대책을 급속중 마련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경제위기와의 전쟁에서 선봉에 선 것은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탓도 있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차질 지난 97년 외환위기 사태가 재연될 지도 모른다는 게 청와대와 여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특히 여권 내부에선 지금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실상과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경제위기 극복 단합·예산안 조속처리 당부

李대통령 시정연설 될 뉘나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할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아 여야를 초월한 국민 모두의 단합과 단결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적 단합에 기반한 신뢰회복이 사태해결의 가장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현 정부 경제팀이 시장의 불신을 받고 있고, 특히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분야로 옮겨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할 필요

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경기활성화의 양대 축인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관련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의 국내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협조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우리 정부의 위기극복의 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한은 금융위기 극복 대책

정부와 한국은행이 자금시장의 경색을 풀고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지급준비율을 내리고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은행채를 편입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자금시장의 근간인 은행이 자금이 풀 수 있도록 원화유동성 감독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관투자자 유동성 지원 등 비상계획을 가동한 가운데 펀드 수수료 인하 등 추가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27일 금융위 임시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금리 전격 인하 가능성 ... 지급준비율도 낮춰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원화 유동성의 경색이 심각한데다 중소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관심은 어느 정도 내리느냐에 쏠려 있다. 현재 상태로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큰 편이다. 그러나 0.50% 포인트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위나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금통위가 충격 요법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은행채를 환매조건부(RP)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은행채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며 은행들은 원화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마디로 은행채가 RP대상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은행채의 상품가치를 높여주면서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 또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면 CD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가게 된다. 은행채가 RP 대상에 포함되면 증권사나 건설사 등 다른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과의 형평성 문제는 계속 남게 된다. 한은은 또 임시 금통위에서 지급준비율도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지급준비율 인하의 경우 파급 효과가 금융시장에 한정돼 있으면서도 정

책금리처럼 유동성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시장안정 비상계획을 가동하고 있다. 비상계획으로 잡혀 있던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계 해택과 기관투자자 지원 및 자산운용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은 이미 공개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세율 0.3%) 인하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세수 감소 폭이 크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등 타부처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공고 제2008-458호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 수상후보자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한 인재를 발굴·지원·육성·발견을 위한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과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을 수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상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2008. 10. 27
광주광역시
1. 시상 부문 및 인원
시상 부문: 문학부, 한국문학부, 서화부, 조각부, 민속부, 음악부, 미술부, 공연부, 방송부, 체육부, 기타
2. 수상후보자 자격
3. 심사내역
4. 수상후보자 추천 및 접수
5. 수상지표
6. 기타

2009학년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신입생모집
모집안내
전형일정
문의

수원지구
아파트 분양권
택지 및 상업지역 토지
토지종가
아파트 중개 (신속처리)
공장
수원지구 송원빌딩 임대 11월준공